

All About Art

February, 2018 | 김금영 기자

Seoul Auction EST. 1998



권인경, '잊혀진 기억, 상기한 시간 1'. 종이에 수성흑연, 연필, 고서 콜라주와 아크릴, 73 x 141cm, 2018. / 도시서 살롱 2월 6~25일.

신학철 '모내기' 작품,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보관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월 26일 오전 10시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 작품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아 국립현대미술관에 보관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검찰 참고에 보관되면서 일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점검하고,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1월 29일 오전 11시,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원저작자인 신학철 화백과 훼손된 부분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관련 전문가들과 보존·관리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최효준 관장, 서울시립미술관 올해 전시 계획 밝혀

1월 29일 열린 2018 서울시립미술관 간담회에 최효준 관장이 참석했다. 최 관장은 "우리 삶을 바꾸는, 마음을 가진 미술관"을 지향하는 서울시립미술관은 올해 미술관의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미술이 우리 삶에서 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발굴하고 이를 위해 마음을 다하는 전시와 활동을 기획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옥상·김구림 화백, 미술인 신년간담회 참석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1월 31일 열린 미술인 신년간담회에 참석했다. 도 장관은 이날 미술작가 및 미술단체장들의 미술 중장기 계획 수립 관련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임옥상, 김구림 화백(오른쪽에서 두 번째, 세 번째)도 자리에 참석했다.



김충재 x 이덕형 콜라보 전시 열려

롯데백화점은 김충재 x 이덕형의 2인전 '프롬 벡터(From Vector)'전을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롯데갤러리에서 1월 27일~2월 25일 연다. 두 작가는 스피커(Speaker) 소속 아티스트로 패션, 공예 등 예술과 디자인을 만나며 최근 트렌드를 선도하는 인물루언서로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김충재(사진)는 제품 디자이너라는 타이틀 안에서 제품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작업을 한다.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이덕형은 다양한 로고 작업에 관심을 갖고, 작가의 색을 덧입힌 감각적인 로고 디자인으로 이름을 알렸다.



바이런 김, 국제갤러리 전시 현장 방문

바이런 김이 2월 1일 국제갤러리에서 열린 '스카이' 전시 간담회에 참석해 작업에 대해 설명했다. 1970년대 말부터 지속적으로 비평적인 작업을 선보여 온 바이런 김은 인종적 정체성 문제를 다룬 미니멀리즘적 회화 작업으로 알려졌다. 현재 예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다수의 회화 작품을 선보인다.



권인경 작가, '멜리스 비아헤!'전 참여

권인경 작가가 도로리 살롱에서 2월 6~25일 열리는 기획전 '멜리스 비아헤!'에 참여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스페인 마드리드 한국문화원에서 열렸던 '뉴 서울 프로젝트' 전시 참석차 스페인으로 출장 겸 여행을 다녀 온 권인경, 박능생, 박영길 작가가 그곳에서 새롭게 접한 풍경에 매료돼 자신만의 감각과 시선으로 그려낸 작품들을 골라 한 자리에 모아 소개한다. 권인경 작가는 2010년 창간 10주년을 맞아 진행된 주간지 CNB저널 커버 공모에 당선된 바 있다.

